Workspace | 업무공간

Typical plan is an American invention. It is zero-degree architecture, architecture stripped of all traces of uniqueness and specificity. It belongs to the New World.

Typical Plan from S,M,L,XL, Rem Koolhaas and Bruce Mau

우리 일상의 약 1/3 은 일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주거의 공간과 더불어 업무의 공간은 우리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다른 프로그램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도 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 하에 있어야 하지만, 업무공간의 대표적 건축중 하나인 우리 주위의 오피스 빌딩들은 대부분 19 세기말 미국에서 발명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복제되어 쌓아올린 바닥, 중성적인 넓은 비워진 공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공조시설 등 모두가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대량생산 시대의 유물들이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단지 생산을 위해 존재로 여겨진다. 건축가 역시 이런 상황 하에서 특징없는 바닥들을 둘러싸는 외피 디자인,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외부인을 불러들이는 장식된 로비 디자인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다. 그러나 1970 년대 이후 포디즘으로부터 포스트포디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기술, 지식, 정보, 문화 등 비물질적인 생산이 물질적인 생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며 물질 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 설비보다는 비물질적 요소들, 새로운 아이디어, 디자인, 이미지의 창출이나 공동학습, 상호협력, 사회적 자본 등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도시생활과 공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물질적 생산은 공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가정, 거리, 온라인 공간에서 구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근대 사회에 존재하던 생산, 유통, 소비의 시공간적 경계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 과연 우리시대, 우리 사회의 업무의 개념은 무엇이며 업무의 공간으로서 여전히 전형적인 평면들 typical plan 을 가진 오피스 빌딩의 개념은 유효한 것인가? 생산을 위한 건축으로서 경제적 자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업무 공간의 건축에서 건축가로서의 개입은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엘리베이터, 공조설비등 100 여년 전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 공간을 위한 건축이 출발했다면 그간의 기술의 발전은 업무공간에 어떤 발전의 가능성들을 제공할 것인가?